

분열형 성격과 비합리적 신념간의 관계

이 흥 표 양 익 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계요병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열형 성격이 강한 대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Raine(1991)의 분열형 성격질문지를 활용하여 분열형 성격과 비합리적 신념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Raine에 따르면 상위 10% 이상의 분열형 성격집단은 비합리적 신념 정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 분열형 성격이 높을수록 특히 과염려와 무력감이 높았으며 지나친 자기-기대, 문제회피 경향, 인정욕구도 높았다. 그러나 완전주의적 사고 및 의존성은 오히려 낮아졌으며 비난 경향 및 정서적 무책임성과는 관계가 없었다. 비합리적 신념과 관련이 높은 분열형 성격 특성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사회적 불안과 정동의 제한, 대인관계의 위축과 고립추구, 관계사고 등으로써 특히 높은 자기-기대, 인정욕구, 문제회피 등의 비합리적 신념이 분열형 성격의 대인관계/정서적 위축을 유발하거나 역기능적 상호관계에 있는 변인이었다. 또한 분열형 성격이 강해질수록 문제해결과정에서 외부지향적 신념은 낮아지는 반면 회피적이고 과거지향적인 해결태도가 높아졌다. 분열형 성격이 높은 대학생들은 서로 인지부조화를 유발하고 문제해결을 악화시키는 비합리적 신념들이 높았다.

분열형 성격장애(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는 정신분열병과 관련된 성격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인 분열형 스펙트럼(schizotypal spectrum)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Kety(1975)의 진단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분열형 성격장애는 분열성(schizoid), 편집적(paranoid) 성격장애와 함께 정신분열병과 관련이 가장 높은 성격장애이다(Siever, 1992; Kaplan et al, 1994). 분열형(schizotype)이란 용어도 원래는 정신분열병적인 유전적 소인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정신병적 표현

형 변이를 명명하는데 사용되었다(Campbell, 1989).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분열형 성격장애에는 정신분열병과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다. 첫째로 분열형 성격장애가 반드시 단발한(full-blown) 정신분열병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분열형 성격장애로 인해 단기 정신병 삽화를 보일 수는 있지만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성은 대개 적다. 또한 분열형 성격장애의 자손들이 다른 성격장애보다 정신분열병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Oldham & Morris, 1988).

분열형 성격장애는 정신분열병적 소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신분열병과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특성을 요약해 보면 (1) 관계사고 (2) 하위문화의 규범에 맞지 않은 기묘한 신념이나 마술적 사고 (3) 신체적 착각을 포함한 유별난 지각경험 (4) 기묘한 사고와 언어 (5) 의심이나 편집적 사고 (6) 부적절하거나 메타른 정동 (7) 기묘하고 엉뚱한 행동 또는 외모 (8) 직계가족 이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9) 과도한 사회적 불안(DSM-IV, 1994). 정신분열병과 유사한 증상과 현실적응의 곤란을 보이면서도 분열형 성격장애에서는 증상의 심각도가 훨씬 덜하다. 의심, 편집사고 및 관계사고를 보이지만 편집망상이나 관계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극심한 현실 검증력의 손상이나 지속적인 정신병 삽화는 거의 경험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열형 성격장애가 병원장면을 찾거나 입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유전적으로는 정신분열증의 소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검증력의 손상이 미미하며 질환에 대항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유전적 파라다임에 의거한 연구 또는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되어 임상장면에 입원한 환자중심의 연구에 그쳤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일반 모집단에서 부적응적이거나 기능하고 있는 실제의 많은 분열형 성격장애자들을 놓칠 수밖에 없으며(Lenzenweger, 1994), 한정된 연구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분열형 성격장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상장면보다는 일반 모집단에서 찾아내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집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의거하여 분열형 성격을 정상 대학생 집단에서 표집하였다.

Raine(1991)은 DSM-III-R(APA, 1987)의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분열형 성격장애의 9가지 특징을 평가하는 분열형 성격 질문지(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를 개발하였다. Raine(1994)은 일반 모집단에 분열형 성격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상적으로 분열형 성격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분열형 성격 질문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분열형 성격 질문지에서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의 55%가 분열형 성격장애로 진단되었으며 임상적 진단을 받지 못한 45%의 사람들도 3-5가지의 분열형 특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분열형 성격 질문지에서 상위 10% 이상에 속하는 개인들이라면 분열형 성격 소인이 매우 강하며 나아가 분열형 성격장애에 속할 가능성도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분열형 성격장애의 일탈된 정동적, 인지적, 행동적 특징들은 사회적 고립과 자기-소외를 야기시킨다. 이들은 사회적 성취에 실패하고 소원해지며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게 된다(Millon, 1988). 자주 사고를 논리적으로 지향시키지 못한 채 모호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고로 빠져버리며 행동상의 기벽과 의심, 부적절한 정동표현과 정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형성에 실패하게 된다. 학교와 직장에서도 결손과 비규칙성이 심하고 적응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적응의 실패에는 자기와 현실에 대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인지체계가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Ellis(1962)의 비합리적 신념에는 지나친 자기기대,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 과염려, 비난경향, 정서적 무책임성, 완전주의적 사고, 의존성, 문제회피 등이 포함된다.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는 신경증적인 정서적, 행동적 반응들을 발생하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인자이다(Ellis, 1962). 부적응적 인지 혹은 역기능적 태도는(dysfunctional attitude; Beck, 1976) 주로 우울, 불안과 같은 신경증적 문제들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다. Seligman(1978)에 따르면 통제불능상황에서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 귀인을 할 때 무력감과 우울을 경험하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이 강할수록 대중연설 불안과 사회평가 불안도 강하다(Gormally et al, 1981). 또한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비합리적 신념이 각기 다르다. 높은 자기기대, 좌절반응, 과염려, 문제회피, 무력감, 완전주의 등은 우울과 상관이 있으며 인정욕구, 과염려, 무력감, 문제회피, 좌절반응, 지나친 자기기대, 정서적

무책임성, 의존성 등은 불안과 관련이 높다(신현균, 1990).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신경증적 문제와 관련되어 연구된 반면, 정신병에서는 사고장애가 당연시되어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역기능을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부적응적 인지구조와 정신병적 성격구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등한시되어 왔다. 인지적 장애가 증상유발의 보다 직접적 원인일지라도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나 관리의 약화를 일으키며 증상의 유발과 적응실패의 심각도를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비합리적 인지구조가 정신병적 성격구조에도 존재할 것이다. 나아가 분열형 성격장애에서만 독특하게 작용하는 특유한 비합리적 신념들이 존재할 것이다. Ellis의 9가지 비합리적 신념 중 우울에 작용하는 비합리적 신념과 불안을 야기하는 신념이 다른 것처럼, 분열형 성격구조가 갖고있는 비합리적 신념의 정도나 특성은 다른 성격장애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분열형 성격장애에 독특한 비합리적 신념체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분열형 성격의 사회적 소외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혼란을 촉발하거나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일반 대학생 집단에서 분열형 성격 대학생을 추출하고 이들의 비합리적 신념 특성과 역동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열형 성격 경향성이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강할 것이다. 그러나 9가지 비합리적 신념이 모두 높지는 않을 것이다. 분열형 성격에만 관련이 높은 특유한 비합리적 신념들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둘째, Raine에 따르면 분열형 성격 질문지의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격장애 경향성이 높고 따라서 병리적 함의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비합리적 신념의 정도가 더 심할 것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서울시내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49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중 질문지의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반응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444명(남자 248명 55.9%, 여자 196명 44.1%)을 자료처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평균연령은 20.47세였으며 분포범위는 18세부터 28세였다.

연구도구

분열형 성격 척도는 DSM-III-R(APA, 1987)의 진단준거에 따라 분열형 성격장애를 평가하는 74개의 항목으로 Raine에(1991) 의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희옥 등(1997)에 의해 타당화된 64문항의 한국판 분열형 성격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적 합치도는 .91이었으며 요인분석결과 9가지 분열형 성격범주가 6가지 요인으로 축약되었다. 6가지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는 .77부터 .84로 상당히 높았다. 각 요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인 1 : 특이한 지각적 경험과 마술적 사고 - 독특한 생각, 환상적인 것에 대한 신념과 경험

요인 2 : 사회적 불안과 정동의 제한 - 사회적 장면에서의 초조, 불편감. 정서적 경험능력의 빈약함, 감정표현의 미숙

요인 3 : 대인관계의 위축과 고립추구 - 경계심, 사회적 기술의 결여, 의심, 대인관계에서 위축되어 있고 친한 친구가 없으며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없음.

요인 4 : 기이한 회화

요인 5 : 기이하거나 이상한 행동

요인 6 : 관계 사고

비합리적 신념 척도(Irrational Belief Test : IBT)는 Ellis의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Jones (1969)에 의해 개발되었다. 10개의 비합리적 신념을 요인분

석한 결과 좌절적 반응 요인이 추출되지 않았으며 요인 9개로 축약되었다(신현균, 1990). 본 연구에서는 신현균에 의해 77개 문항으로 축약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나치게 높은 자기기대 :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유능하고 강하며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성취적이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양심적이고 신뢰있으며 책임감있는 사람으로 지각되어야 한다고 기대한다.

2. 인정에 대한 욕구 : 모든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정과 사회적 성취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다.

3. 과염려 : 어떤 일이 위험하거나 두려우면 지나치게 걱정한다.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불가능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은 불안이 과도하게 많다.

4. 비난경향 : 나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하면 심하게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경직성과 단순성 및 지나친 엄격함을 포함한다.

5. 정서적 무책임성 : 인간의 행복은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인간은 자신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 통제력이 없다. 자기결정과 책임을 회피하고 운명은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외부귀인을 포함한다.

6. 완전주의적 사고 : 인간의 문제에는 옳고 완벽한 해결책이 반드시 있으며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는 완전성과 이상적이고 옳은 세계와 해결책에 대한 맹신을 포함한다.

7. 의존성 :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 자기결정과 문제해결의 의지를 회피하고 의존적 신념을 갖는다.

8. 문제회피 : 인생의 역경이나 자기 책임감은 직면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보며 난관이나 힘든 일 혹은 불쾌한 일을 회피한다.

9. 무력감 : 과거는 현재 행동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어떤 일이 한번 영향을 미쳤으면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과거귀인과 운명적 사고를 포함한다.

분석절차

빈도분석을 통하여 분열형 성격질문지와 비합리적 신념척도의 기술통계량치를 구한 다음 분열형 성격 및 분열형 성격의 하위요인과 비합리적 신념간의 상관관계를 단순상관분석(Simple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알아보았다. 두 번째로 분열형 성격장애 총점에서 상위 10%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집단과 평균범위의 점수집단(25% -75%), 그리고 하위 점수집단(25% 미만)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과 Duncan test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일반 대학생 집단에서 나타난 분열형 성격과 비합리적 신념의 기술 통계치를 알아 본 결과, 분열형 성격점수의 점수범위는 0.00 - 55.00, 평균치 24.81, 중앙치 25.00으로써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비합리적 신념에서도 점수범위는 104.00 - 231.00, 평균 159.08, 중앙치 159.00으로써 정상분포를 이루었다.

분열형 성격 경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비합리적 신념의 정도도 높았지만 모든 비합리적 신념들이 높지는 않았으며, 9가지 비합리적 신념 중에서 분열형 성격 경향성이 강할수록 높은 비합리적 신념은 특히 과염려와 무력감이었다. 또한 높은 자기-기대, 문제회피 경향 및 인정욕구와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완전주의적 사고 및 의존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비난 경향, 정서적 무책임성 및 분열형 성격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표 1).

분열형 성격을 구성하는 6가지 요인 중의 어떤 요인들이 과연 비합리적 신념과 상관이 높은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과염려와 무력감에 대해서는 분열형 성격의 하위요인 모두 상관관계가 높았다. 즉, 과염려와 무력감에서는 요인차이에 상관없이 분열형 성격구조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이와 달리 높은 자기-기대에 대해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던 분열형 성격요인은 사회적 불안과 정동의 제

표 1. 분열형 성격과 비합리적 신념간의 상관관계(N=444)

분열형 성격	높은 자기-기대 .31***	인정욕구 .20***	과염려 .46***	비난경향 -.03	정서적 무책임성 .01
분열형 성격	완전주의적 사고 -.23***	의존성 -.17**	문제회피 .34***	무력감 .45***	비합리적 신념 .34***

** p <.01, *** p <.001

표 2. 비합리적 신념과 분열형 성격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높은 자기-기대	인정욕구	과염려	비난경향	정서적 무책임성
요인 1	.10	.09	.39**	-.09	-.04
요인 2	.44***	.23***	.34***	.11	.11
요인 3	.17***	.04	.19***	-.02	.00
요인 4	.22***	.15**	.32***	.00	-.02
요인 5	.05	.02	.22***	-.07	-.04
요인 6	.26***	.28***	.33***	-.06	.00
	완전주의적 사고	의존성	문제회피	무력감	비합리적 신념
요인 1	-.12	-.02	.11	.29***	.17***
요인 2	-.20***	-.13	.41***	.38***	.44***
요인 3	-.19***	-.32***	.26***	.32***	.12***
요인 4	-.16**	-.06	.25***	.31***	.26***
요인 5	-.12	-.26***	.13	.18***	.03
요인 6	-.14**	-.02	.23***	.34***	.32***

** p <.01, *** p <.001

한, 대인관계의 위축과 고립추구, 기이한 회화, 관계 사고 등의 요인 2, 3, 4, 6이었으며 특이한 지각적 경험과 마술적 사고, 기이한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 1, 5와는 상관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문제회피에서도 실제 상관이 있었던 분열형 성격의 하위요인은 요인 2, 3, 4, 6이었으며 요인 1, 5와는 관련이 없었다. 세 번째로 인정욕구와 상관이 높은 요인은 사회적 불안과 정동의 정동의 제한, 기이한 회화, 관계사고와 같은 요인 2, 4, 6이었고 그외 요인은 상관이 없었다.

표 1에서 의존성과는 -.17의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부적 상관이 있는 요인은 대인관계의 위축과 고립추구, 기이한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 3과 요인 5뿐이고 나머지 요인은 관계가 없었다. 또한 높은 자기-기대, 문제회피, 무력감 및 과염려에서 나타난

상관결과와는 반대방향으로 완전주의적 사고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요인 2, 3, 4, 6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상관관계가 없었던 정서적 무책임성과 비난경향과의 관계에서는 분열형 성격의 하위요인 모두 상관이 없었다.

분열형 성격 질문지의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병리적인 성격장애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Raine, 1991). 분열형 성격의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합리적 신념 정도가 얼마나 높은지 비교하기 위하여 이들을 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았다. 비교집단은 분열형 성격 점수가 25-75% 사이의 평균범위에 속하는 집단과 25% 미만의 낮은 점수범위에 속하는 집단이었다. 분열형 성격점수가 정상분포를 이룸을 볼 때 집

단 1은 분열형 성격 경향성이 낮은 비-분열형 성격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집단 2는 분열형 성격점수가 평균범위에 속하는 중간집단이다.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비난경향과 정서적 무

책임성에서는 단순상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었다. 즉, 분열형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비난경향이나 정서적 무책임성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완전주의적 사고와 의존성에서는 유의미

표 3.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비분열형(Low, ①) 중간(Moderate, ②), 상위분열형(High, ③) 성격집단의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

	집단	N	Mean(SD)	F ratio	사후비교
비합리적 신념	Low	96	151.29(18.30)	14.64****	① < ② < ③
	Moderate	196	159.29(18.60)		
	High	34	170.62(14.92)		
높은 자기기대	Low	103	31.02 (7.63)	12.16****	① < ② < ③
	Moderate	220	32.92 (8.25)		
	High	39	38.38 (6.98)		
인정욕구	Low	105	25.46 (4.44)	11.40****	① < ② < ③
	Moderate	214	27.67 (5.01)		
	High	36	29.47 (5.58)		
과염려	Low	103	10.34 (3.49)	49.12****	① < ② < ③
	Moderate	224	12.62 (3.57)		
	High	39	16.62 (3.56)		
비난경향	Low	105	14.93 (2.98)	.03	
	Moderate	225	15.00 (3.05)		
	High	40	14.90 (3.02)		
정서적 무책임성	Low	105	13.18 (3.96)	.51	
	Moderate	222	12.62 (4.57)		
	High	40	12.50 (4.55)		
완전주의적 사고	Low	104	13.75 (3.52)	3.11*	③ < ①
	Moderate	225	13.06 (3.77)		
	High	40	12.07 (3.79)		
의존성	Low	103	18.99 (3.60)	4.48*	③ < ② = ①
	Moderate	224	18.22 (3.77)		
	High	39	16.92 (3.82)		
문제회피	Low	104	12.23 (3.54)	13.42****	① < ② < ③
	Moderate	225	13.26 (3.08)		
	High	40	15.33 (3.10)		
무력감	Low	104	11.26 (2.99)	37.21****	① < ② < ③
	Moderate	220	12.90 (3.18)		
	High	40	16.18 (2.70)		

Low : SPQ Score < 25%, Moderate : 25% < SPQ < 75%, High : SPQ Score > 10%

* p < .05 **** p < .0001

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검증결과, 상위 분열형 성격 집단은 평균범위의 점수집단과 하위점수의 점수집단보다 의존성이 낮았으며 완전주의적 사고에서도 상위 분열형 성격집단이 하위 분열형 성격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와 더불어 그외의 높은 자기-기대, 인정욕구, 과염려, 문제회피, 무력감 등의 다른 비합리적 신념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10% 이상의 상위 분열형 성격집단은 정상범위의 집단이나 하위 분열형 성격집단보다 자기-기대와 인정욕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과도하게 염려하며 문제를 회피하고 무력감을 경험하는 과염려, 문제회피, 인정욕구도 매우 높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 모집단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분열형 성격 경향성과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분열형 성격질문지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상위 분열형 성격집단의 비합리적 신념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상위 분열형 성격집단을 추출한 이유는 이들이 병원 장면을 방문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따라서 병원으로 한정된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분열형 성격장애자들을 연구에서 누락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첫째, 분열형 성격 경향성이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강할 것이다. 나아가 분열형 성격에 특유한 비합리적 신념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들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Raine의 분열형 성격장애 질문지에서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격장애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이들은 평균 범위의 정상집단이나 낮은 점수범위의 비-분열형 성격집단보다 훨씬 비합리적 신념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분열형 성격이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의 정도도 높았다. 그러나 모든 비합리적 신념이

모두 높지는 않았다. 9가지 비합리적 신념 중에서 분열형 성격에 특유한 비합리적 신념은 특히 과염려와 무력감이었다. 또한 지나친 자기-기대, 문제회피 경향 및 인정욕구와의 상관도 유의미하였다. 이와 반대로 분열형 성격이 강할수록 완전주의적 사고 및 의존성은 낮아졌으며 비난경향, 정서적 무책임성과는 관련이 없었다. 나아가 과염려, 무력감, 문제회피, 높은 자기-기대, 인정욕구 등과 같이 분열형 성격에서 높은 비합리적 신념과 관련이 높은 특정한 분열형 성격특성도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주로 사회적 불안과 정동의 제한, 대인관계의 위축과 고립추구, 기이한 회화, 관계사고와 같은 요인 2, 3, 4, 6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분열형 성격이 강해질수록 자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인정욕구는 강해진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닥치기도 전에 먼저 염려하고 자신의 능력을 회의하며 무력감을 경험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타인을 비난하거나 주변의 중요한 타인에게 문제해결을 의지하는 경향도 낮아, 분열형 성격 경향성이 강할수록 문제의 어려움과 난관을 외부로 돌리기 보다는 내재화하고 내사하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분열형 성격 경향성이 강할수록 문제해결과정에서 투사나 의존과 같은 외부지향적(outer-oriented) 방식을 추구하는 인지적 경향은 낮아지며 문제해결을 피하려는 회피적(avoidant) 태도와 과거의 실패경험에 비추어 과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과거지향적(past-oriented)이 강하고,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내부지향적(inner-oriented) 해결방식을 추구하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분열형 성격의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으로 볼 때, 분열형 성격에 특유한 비합리적 신념은 정동경험의 제한 및 사회적 불안, 의심, 관계사고 등을 포함하는 대인관계의 부적응과 상호강화적인 영향을 주고 받고 있었다. 즉, 분열형 성격의 비합리적 신념은 주로 사회적 관계의 적응과 정서에 부적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요인 2는 사회적 불안을 포함한 정동의 제한을 포함하는데 과도한 사회적 불안은 분열형 성격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로써(Pfohl et al, 1986) 6

가지 요인 중 요인 2가 가장 비합리적 신념들과 상관성이 높았다. 이는 분열형 성격의 위축되고 불안한 정서가 낮은 과염려, 무력감, 지나친 자기-기대, 문제회피 등의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서로 부적응을 유발하는 상호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높은 자기-기대와 문제회피, 인정욕구에 대해 상관성이 높은 분열형 성격요인은 사회적 불안과 정동의 제한, 대인관계의 위축과 고립추구, 관계사고 등의 요인 2, 3, 6이었으며 완전주의적 사고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완전히 반대였다. 이는 분열형 성격의 정서적/대인관계적 위축을 유발하거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비합리적 신념들이 주로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고 사회적 승인을 바라면서도 문제해결을 회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려는 경향과 관련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에는 완전하고 올바른 해결책이 있으며 옳고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완전주의에 대한 맹신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의존적 신념은 낮았으며 완전주의적 신념과 의존적 신념이 낮아지면서 정서적, 대인관계적 위축도도 감소하였다.

둘째로 분열형 성격의 상위 10%에 속하는 대학생들을 평균범위의 대학생들 및 하위점수의 비-분열형 성격의 대학생들과 비교한 결과는 상위 분열형 성격 대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아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상위 분열형 성격 집단은 자신에 대한 기대수준과 사회적 인정욕구가 과도하게 높았다. 지나친 자기-기대와 인정욕구는 과도한 책임감과 행동의 윤리, 성취수준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대수준이 자신의 현재 능력과 지적, 문화적 기술을 능가하는 경우, 분열형 성격이 강한 대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외부의 지지를 찾거나 미래지향적 문제해결을 모색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문제해결을 더욱 악화시키는 회피적 문제해결이나 과거지향적 혹은 내부지향적 문제해결방식을 취한다. 이는 과거 사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운명적 사고가 강한데서도 지지된다. 성취수준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신

이 책임감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되지 못하면 자기-부적절감과 무력감 및 우울감이 유발되기 쉽다. 타인으로부터의 과도한 승인욕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기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김은상, 1990). 역기능적 태도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사건을 압도적인 경험으로 지각하며 자신의 통제력 범위밖에 있다고 지각한다(Olinger et al, 1987).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기대수준 및 인정욕구, 문제해결방식의 인지적 오류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수준, 자기 능력에 대한 무력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사회적 인정욕구에는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대해 방어적으로 회피하는 측면이 있다(Asendorf & Scherer, 1983). 이는 분열형 성격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고자 하는 승인욕구가 지나치게 강하면서도 비난경향이나 정서적 무책임성이 낫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결국 분열형 성격이 높은 대학생들에게는 인지적 유연성과 조화가 결여되어 있다. 사람에게는 자기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동기(self-consistency motive)가 있으며 현실 정보를 논리적인 지각체계 안으로 동화시키고자 한다(Epstein, 1992). 그러나 분열형 성격이 높은 대학생들이 보이는 비합리적 신념들은 일관된 자기개념을 유지하게 하는 신념체계가 아니라 서로간에 불일치하며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를 일으킴으로써 문제해결을 악화시키고 정체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인지태세들이다. 예를 들어, 높은 자기-기대와 인정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제직면과 자율적 사고, 미래지향적 사고가 더욱 더 필요하다. 하지만 분열형 성격의 경우에는 높은 자기기대 및 인정욕구의 성취를 방해하는 과거귀인과 회피적 사고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 갈등과 인지적 악순환을 경험하기 쉽다. 분열형 성격장애자들이 사회적 성취에 실패하고 고립되는 간접적인 이유 중 하나는 역기능적인 인지 왜곡이 강하며, 더욱이 이러한 신념체계들이 한 개인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일반 대학생 모집단

을 대상으로 하면서, 10% 이상의 상위점수를 받은 대학생들이 Raine의 연구에서처럼 분열형 성격장애의 9가지 진단범주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진단적 확증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병원장면에 입원하여 분열형 성격장애의 임상적 진단을 받은 환자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로, 다른 성격장애와의 비교연구가 선행되지 않았다. 모든 성격장애에는 어느정도 비합리적 신념이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열형 성격이 높은 대학생들이 사회적 인정욕구와 기대수준이 과도하게 높았던 것처럼 다른 성격장애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분열형 성격장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제한점이 따를 수 있다.

성격장애로서의 확실한 진단적 함의와 성격적 차이에 따른 비교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분열형 성격장애로만 간주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Raine의 선행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어느정도의 병리적 함의는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신경증과 구분되는 분열형 성격장애 특유의 비합리적 신념과 그 역동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성격장애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비합리적 신념과 특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성격장애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들간의 비합리적 신념정도와 역동을 비교하는 연구와 명확한 진단적 함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희옥, 양익홍, 이홍표, 김묘은, 함웅 (1997). 한국판 분열형 성격척도의 타당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6권 2호.
 신현균 (1990). 비합리적 사고와 귀인양식에 있어 우울집단과 불안집단의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 청구논문.

김은상 (1990). 역기능적 태도와 스트레스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Asendorf, A., & scherer, D. (1983). The discrepant repressor : Differentiation between low anxiety, high anxiety and repression of anxiety by autonomic-facial-verbal patterns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334-134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Beck, A.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onal Disorder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Campbell, R.J. (1989). *Psychiatric Dictionary*. 6th e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Ellis, A.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 Stuart.
 Epstein, S. (1992). Coping ability, negative self-evaluation and over-generalization : Experiment and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826-836.
 Gormally, J., Sipp, G., Raphael, R., Edwin, D. & Varvil-Weld, D. (1981).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cognitions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300-301.
 Kaplan, H.I., Sadock. B.J., & Grebb, J.A. (1994).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s, Clinical Psychiatry*. 7th ed. Williams & Wilkins.
 Kety, S.S., Rosenthal, D., & Wender, P.H. et al. (1975). *Mental illness in the biological and*

- adoptive families of adopted Individuals who have become schizophrenic : preliminary report based on psychiatric interviews, *Genetic Research in Psychiatry*. edited by Fieve, R.R., Rosental, D., & Brill, H. B. Jones Hopkins University Press, 147-165.
- Oldham, J.M., & Morris, L.B. (1988). *The Personality Self-Portrait*. Bantam Books, 242-281.
- Olinger, L.J., Kuiper, N.A., & Shaw, B.F. (1987).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tressful life event : An interactive model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 Research*, 11, 25-40.
- Pfohl, B., Coryell, W., & Zimmerman, M. et al. (1986).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 Diagnostic overlap and internal consistency of individual DSM-III criteria. *Comprehensive Psychiatry*, 27, 21-34.
- Million, T. (1988). *The Disorders of Personality*. John Wiley & Sons,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400-429.
- Rado, S. (1960). Theory and therapy : the theory of schizotypal organization and its application to the treatment of decompensated schizotypal behavior. In Scher, S.C., & Davis H.R., eds. *The Outpatient Treatment of Schizophrenia*, New York NY, Bruner & Stratten, 87-101.
- Raine, A. (1987). Validation of schizoid personality scales using indices of schizotypal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a criminal population.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305-309.
- Raine, A. (1991). The SPQ :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schizotypal personality based on DSM-III-R criteria. *Schizophrenia Bulletin*, 17, No 4.
- Raine, A., Reynolds, T., Lencz, A., Scerbo, N., & Triphon, D. (1994). Cognitive-perception, international & disorganized features of schizotypal personality. *Schizophrenia Bulletin*, 20, 1.
- Rosental, D. (1975). Discussion : The Concept of Subschizophrenic Disorder. *Genetic Research in Psychiatry*, 199-208.
- Seligman, M.G.P., & Abramson, L.Y.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 ;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Siever, L.J. (1992).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Review of Psychiatry*, 11, 2. edited by Allan, T., & Michelle, B.R. American Psychiatric Press.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chizotypal Personality with Irrational Belief

Heung-Pyo Lee Ik-hong Yang

Korea University

Keyo Hospital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irrational belief characteristics of schizotypal personality student in a university student. The schizotypal personality was assessed through Raine's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SPQ). Especially, the highest rank group of above a 10% point in SPQ score is expected to have stronger irrational belief than average score group and non-schizotypal group to be below a 10% point in SPQ score. In this result, The higher schizotypal personality trend, especially the anxious overcern and helplessness were very higher, and higher were self-expectation, social approval need, problem avoidance. On the contrary, the lower were perfectionnism and dependency. And no correlation between schizotypal personality with blame proneness & emotional irresponsibility. The factors of schizotypal personality which have high correlation with irrational belief were social anxiety and emotional constriction, and isolation-seeking, idea of reference, shrinking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 Especially, the high self-expectency, social approval need, problem avoidance were irrational belief that raise dysfunctional interact with emotional/social flinching of schizotypal personality. Also, the higher schizotypal personality, the avoidant-oriented and past-oriented belief on problem solution were higher, but the outer-oriented problem solution belief was lower. The high schizotypal personality in university students have irrational belief which increase cognitive dissonance and worsen problem solution.